

III. 北韓 動靜

(1) 北送 日本人妻 故鄉 訪問과 北日 修交 協商 展望

- (고향 방문의 배경과 의미) 지난 8월 북경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송 일본 인처의 고향 방문이 성사되었는 바, 이는 인도적 성격보다는 북일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치적 성격이 더욱 강함
- (북일수교협상에 대한 양국의 입장) 북한과 일본 모두 기본적으로 북일 수교협상의 재개를 바라고 있음
 - 북한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교협상 재개를 통해 현재의 식량위기를 해소하고, 중장기적으로는 수교협상 타결에 따른 전후보상금을 북한 경제 재건에 활용하려 함
 -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, 이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을 바라고 있음
- (북일수교협상 전망) 금년 내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, 협상의 진전 속도 및 타결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 등 주변 상황과 연계될 것으로 예상됨

■ 북송 일본인처 고향 방문의 배경과 의미

- 지난 8월 북경회담의 합의에 따라 11월 8-14일 북송 일본인처의 고향 방문이 이루어짐
 - (방문의 배경) 북송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갔던 일본인처의 고향 방문이 지난 11월 8일-14일 사이에 이루어짐
 - 지난 1959년 시작된 북송사업으로 많은 재일동포들이 북한으로 갔으며, 그 중에는 일본인처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(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의 따르면 1,831명)
 - 일본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 일본인처의 고향 방문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, 지난 1991-92년 북일수교협상 당시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
 - 핵문제 해결 이후 수교협상 재개를 모색해 오던 북일 양국은 지난 8월 22일 북경회담에서 북송 일본인처의 고향 방문과 함께 수교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
 - 이에 따라 양측 적십자사의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8일-14일까지 일주일간 북송 일본인처 15명이 1차로 고향을 방문하였음

이번 방문은 북일수교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음

- (방문의 의미) 이번 방문은 인도적 성격보다는 북일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고 있음
 - 이번 방문은 “인도적 문제를 표면에 내세운 완전한 정치적 도구”로 평가되고 있음
 - 방문단의 규모도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그 중 대부분이 노동당원으로 소위 “모범생”만 선출한 것으로 밝혀짐
 - 또한 이번 방문을 대하는 일본 정부나 언론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함
- 결국 이번 방문은 북일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
- 일본은 이번 방문의 대가로 7만톤 규모의 대북 식량 지원을 약속했으며, 방문과 때를 같이 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여3당 대표단을 북한에 보냄

■ 북일수교협상에 대한 양국의 입장

북한은 단기,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일본 모두 북일수교협상 재개를 바라고 있음

- (북한의 입장) 소련의 붕괴로 냉전 체제가 와해된 이래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협상 및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음
 - 단기적으로는 수교협상 재개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식량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현재의 식량 위기를 해소하려고 함
 - 중장기적으로는 수교협상을 타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타파함과 동시에, 전후보상금을 북한 경제 재건에 활용하려고 함

일본도 한반도 안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위해 북한과의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음

- (일본의 입장) 일본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의 연착륙을 바라고 있으며, 이의 일환으로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을 바라고 있음
 -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의 안정으로서, 이를 위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미국의 연착륙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
 -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든 이상, 일본은 1992년 이후 중단된 수교협상의 재개를 통해 북한과의 점진적인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을 바라고 있음

- 다만 남북관계의 진전 없는 상태에서 북일관계의 급속한 개선을 바라지 않는 한국정부의 반대로 일본은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

■ 북일수교협상 전망

금년 안에 북일수교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, 이와 함께 일본의 대북 식량 지원이 예상된다

- (협상 재개 전망) 금년 말이면 북일수교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- 지난 11월 14일 일본 여3당 대표단과 북한 노동당은 공동 성명을 통해, 북일수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음
- 특히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김양건은 지난 11일 여3당 방북단 환영 리셉션에서 “존경하는 하시모토 각하”라는 극존칭을 사용하여 눈길을 끌었음
- 또한 이번 회동에서 그 동안 수교협상의 걸림돌이 되었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의혹에 대해서도 북한이 조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
- 지난 1991-92년의 수교협상도 1990년 9월 가네마루 신을 대표로 한 일본의 자민·사회 양당 대표단의 방북 및 조선 노동당과의 3당공동선언을 계기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
- 금년 내로 북일수교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, 이와 더불어 일본에 의한 상당한 규모의 대북 식량 지원이 예상된다

북일관계 정상화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남아 있으며,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남북 관계의 진전 여부임

- (협상 타결 전망) 그러나 협상 타결을 통한 북일관계 정상화까지는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남아 있음
- 지난 1991-92년 수교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던 전후보상금 문제가 아직 남아 있음
-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남북한 관계의 진전 여부로서,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급속한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대가 예상된다
- 일본으로서는 북미관계의 개선 속도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나, 이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상당 정도 연계되어 있음
-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일단 수교협상을 재개하되, 협상의 진전 속도와 타결 여부는 남북한 관계, 4자회담, 북미관계 등 주변 상황의 추이에 따라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

(김 욱)